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2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이주민 아동을 돕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표

이주민 아동 보호 시설에 인력, 자원 및 의료 지원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나와 대부모와 사설 위탁 보호 가정에 맡겨진 아동에게는 교육, 무료 영어 강좌, 건강 관리 및 정신 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뉴욕에 생활의 터전을 잡은 아동 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즉각적 지원 요구

아동과 가족의 재회 노력 - 법무자문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 및 가족 분리 행태를 멈추고 적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연방 정부의 비인도적인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부모와 떨어지게 된 이주민 아동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아동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의약용품을 포함하여 이러한 아동을 돌보는 의료 제공자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 시설에서 나와 가족의 일원이 된 아동에게 교육, 정신 보건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다른 주에서 온 아동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사설 위탁 보호 가정에 맡겨지는 아동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국경에서 다른 주로 먼저 보내졌다가 뉴욕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아동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동반자가 없는 모든 이주민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HHS)에 요구할 것입니다.
- 즉각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각 시설의 법무자문관과의 협력을 비롯하여, 가족이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주민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서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처음에 HHS로부터 정보를 요구한 후 연방 정부는 현재 뉴욕주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반자 없는 미성년자가 최소 1,292 명이 있다 밝혔다지만, 이 정보는 포괄적이지 않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거나 마키아벨리를 부끄럽게 만들 정략입니다. 뉴욕주는 가족과 격리된 아동과 우리 주에 있는 더 많은 수의 이주민 아동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새로운 자원

뉴욕주는 이처럼 곤란에 처한 아동에게 지원해야 할 고유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서 위탁 보호 시설에서 동반자 없는 이주민 아동을 적절히 돌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위한 의료 자원과 지원 및 강화된 정신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주 정부는 이주민 아동이 뉴욕주와 다른 주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해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사설 위탁 보호 가정에 맡겨졌지만 이러한 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적절한 자원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을 돕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동반자 없는 아동과 후원 가족에게 필요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 단체 및 개별 상담
- 건강 및 정신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요구를 채울 수 있도록 가족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위탁 서비스 제공
- 공동 지원 그룹
- 교육 및 언어 서비스 지원
- 인신매매 및 조직폭력 관련 교육 및 예방 활동

그 밖에도, 뉴욕주는 국내 최초의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에 따라 가족과 격리되었다가 뉴욕주의 입양 가족 및 후원자 가정에 맡겨진 모든 아동이 법정대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21 세 미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교육청 산하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찍 학교에

입학해서 성실히 출석하는 것이 뉴욕으로 온 새로운 이주민 아동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동의 언어 능력, 읽고 쓰는 능력 또는 교육 배경과는 상관없이 보호자나 후견인이 입학 절차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고 아동의 교육 성취도를 뒷받침할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자원 제공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주자 지원국(Office of New Americans, ONA) 오피튜니티 센터(Opportunity Centers)와의 협력하에 제공됩니다. ONA 오피튜니티 센터는 다른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정부 기관과 손잡고 이주민 공동체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조정하고 주관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미국에 새롭게 온 이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미국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입니다. ONA 는 뉴욕주 전역의 이주민 공동체와 교류 경험이 풍부하므로 후원자 가족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HHS 에 뉴욕주의 아동에 대해 종합적이고 검증된 정보 제공 요구

Cuomo 주지사는 앞서 HHS 에 가족 격리 정책의 결과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는 다른 주로 먼저 보내졌다가 뉴욕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아동을 포함하여, 위탁 보호 시설, 입양 가정 또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정착한 아동의 전체 인원수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을 HHS 에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가족과 재회하도록 기울이는 노력

뉴욕주는 각 시설의 법무자문관과 협조하여 미국에 와 있는 아동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전에 다른 조치 중에서도 가족 격리 수용을 멈추고 이주민 가족을 위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 안전 자원

마지막으로, 뉴욕주는 이러한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해 뜻밖에도 새롭게 일고 있는 관심과 함께 공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도 관련 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한 연방 이민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이 국경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그중 다수가 뉴욕주의 보호 시설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설에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아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Trump 행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헌법상

권리 침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 비극을 종식할 때까지 이러한 비인도적 처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아과 의사로서 이주민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연방 정부의 정책이 두고두고 미치게 될 신체 및 감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뉴욕주 보건 담당 커미셔너로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용납할 수 없고 뭔가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주지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주도에 따라, 나는 이들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의 Sheila J. Pool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들 아동을 옹호하는 Cuomo 주지사님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겪는 시점에 우리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마땅히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 지위와는 무관하게 뉴욕주에 있는 모든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 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Steven Choi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족과 격리한다는 최근의 이런 끔찍한 행정 조치로, 연방 정부는 이주권 침해의 지독한 역대 기록에 또 하나의 비인도적 조치를 취한 셈이 되었습니다. 뉴욕이민연맹은 Cuomo 주지사가 이들 아동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우리는 무슨 일이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및 아동 지원 기관 협의체(Council of Family and Child Caring Agencies)의 Kathleen Brady-Stepien 뉴욕주 엡스테이트 담당 전무이사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아동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이미 겪었으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아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건강과 행복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기로 보장함으로써 이들 아동을 돕기 위해 갈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지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